

# 합의 미흡 속 추진... '검은 베레모' 제창 놓고 갈등 촉발

특전사동지회 19일 5·18민주묘지 참배 앞두고 오월단체간 불협화음 왜?

특전사동지회가 오는 19일 광주시 북구 망월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오월 단체와 관계자 등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19일 특전사 5·18민주묘지 참배 행사를 강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5·18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오월 3단체(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아 참배 반대 여론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5·18유족회가 불참 선언을 하고, 5·18부상자회 회원 일부도 '대국민선언저지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참배 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5·18부상자회 회원 200여명 등은 행사 당일 5·18민주묘지 인근에서 참배 반대 집회를 열겠다는 신고를 접수해 단체간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사의 본 취지였던 '화합' 의도가 무색하다

“5·18묘지서 계엄군 승전가라니”  
5·18 트라우마 되살아날까 우려  
유족회·부상자회 등 내부 반발  
집행부의 독단적 운영도 도마에  
“화합 의도 무색” 비판 목소리

는 비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오월 단체와 시민단체는 한 목소리로 “행사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점을 갈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가해자 측인 특전사동지회가 사과, 양심고백 등을 하거나 약속한 적도 없는데 피해자인 5·18관계자들이 먼저 용서를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행사에 앞서 특전사동

지회에서 양심고백 등을 통해 5·18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고 공식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오월 3단체 집행부는 이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진정한 사과’인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으라”고 맞받아 치고 있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조차 끝나지 않아 학살의 책임소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행사가 선불렸다는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행사 세부 내용에서도 5·18 피해자들을 배려하지 못한 점이 속속 드러났다.

참배에 앞서 5·18문화센터에서 진행되는 ‘공동선언식’ 행사에서 특전사 군가 ‘검은 베레모’를 제창하기로 해 반발을 샀다. ‘검은 베레모’는 3공수여단 11대대가 1980년 5월 27일 시민군을 유혈진압한 뒤 전남도청 분수대 앞에서 승전가 삼아 부른 노래로, 5·18유족회 또한 이 노래를 제창한다는 소식에 행사 불참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월 3단체 집행부는 “특전사들이 5·18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우리는 특전사들

상징하는 노래를 부르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두 집단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인 만큼 두 노래를 1대 1로 교환해 부른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참배 도중 특전사들의 복장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점도 배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특전사들이 군복 차림과 군화발로 묘역에 들어서면 체 아물지 못한 5·18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월 3단체 집행부는 이 지적에 대해 “하나하나 트집 잡으면 아무 행사도 치를 수 없다”며 별다른 해명조차 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다.

오월 3단체 집행부의 독단적인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 집행부에 따르면 이 행사 추진 계획이 잡힌 시점은 지난해 12월 28일 오월 3단체 회원 700여명이 모인 연말 송년회 모임 자리였다. 당시 행사 계획을 밝히자 모임 참가자들이 박수갈채로 화답했다는 이유만으로 행사 추진이 결정됐으며, 총회나 이사회 등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술 더 떠 집행부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법단체인 오월 3단체 의견만이 대표성을 가진다”며 “다른 시민단체도 민주주의 사회인 만큼 충분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중요하지 않은 의견’이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마치 5·18 관련자 전체의 의견인 것마냥 막무가내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더구나 집행부는 행사 반대 여론에도 맞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집행부는 “김형미 (사)오월어머니집 관장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을 선전·선동해 싸움판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공격 지시를 내리는 듯한 보도자료를 냈다. 또 5·18부상자회는 오는 17일 광주시 남구 오월어머니집 앞에서 행사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한 항의 방문을 하겠다고 집회신고를 했다.

한 오월 관계자는 “당초 화합을 목표로 추진하던 행사 때문에 오월 단체 간 분열만 커지는 모양새라 안타깝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진 뒤 행사를 추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서 군 교육용 대전차 지뢰 무더기 발견

금호동 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200~300개 발견 회수 조치



광주시 서구의 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군 교육용 대전차 지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사진> 광주서부경찰은 15일 오후 1시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주택단지 공사 현장에서 군 교육용 대전차 지뢰 등 200~300여개가 발견돼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곳에서는 마복근린공원 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공사폐기물 처리를 위해 흙과 나무 잔해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던 포크레인 작업자가 지뢰를 발견하고 소방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육·공군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 광주시 관계자 등이 출동해 주변 통행을 차단하고 폭발물 제거 작업을 했다.

조사 결과 지뢰는 가로·세로 25cm 크기의 대전차 지뢰로, 모두 연습용이라 화약은 들어있지 않았으며 폭발 위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작동 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음만 들리는 형태로, 모두 한 차례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대공 혐의점 또한 없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곳은 과거 육군 상무대 기갑부대가 있던 곳으로, 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훈련 때 쓴 교육용 지뢰를 매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군 당국과 경찰은 구체적인 지뢰 매설 경위를 파악 중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모기 유충 집중 방역

모기 유충 구제방역에 나선 광주시 북구보건소 관계자들이 15일 오전 중흥동 이면도로의 하수구에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사업자금 빌려주지 않는다며 어머니 친구 살해 50대 무기징역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원)는 15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70대 여성 B씨의 집에 찾아가 흥기로 살해한 뒤 현금 7만 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전에도 돈을 빌린 적 있는 어머니 지인 B씨에게 사업자금 1500만원을 빌리려고 했으나 B씨가 빌려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애원을 무시하고 단순히 돈 때문에 생명을 해쳤다”면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죄질이 나쁘며 유족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는 등 형을 감경할 만한 어떤 사정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 해남 국도서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께 해남읍 국도에 A(29)씨가 쓰러져 있다는 운전자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A씨가 운행한 화물차가 국도를 가로지르는 20m 높이의 다른 도로변에 주차돼 있고 난간까지 올라간 흔적이 있다는 점에서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몸에서 바퀴자국이 발견됐고 세차레 정도 A씨를 밟고 지나간 차량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대진 기자 kdi@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